

# ‘차별없는 교육’...장애 이해·인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노력

## 전남지장협,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초청 정책간담회 폐교 활용한 전남광주 ‘장애이해교육센터’ 설치 모색

전남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종택)는 12일 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박흥식 회장,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김종택 협회장 및 전남 22개 시·군 지회장 등 협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전

남·광주 장애이해교육센터 설치가 주요 정책 제안됐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측은 “폐교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장애이해교육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택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은 어릴 때

부터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애이해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애 인식 개선과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 간담회와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12일 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탄소중립 실천·도시 녹화 사업 확산 매진’

## 서옥현 나주임업후계자협의회 회장 취임 28일 빛가람호수공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임업후계자 협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임업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회장으로서 선출된 서옥현 회장(사진)은 “지금의 협의회는 과거 ‘한국 임업후계자’ 단체에서 명칭이 변경된 조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보전, 조경수 재배, 도시 녹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옥현 회장은 37년 동안 조경수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문 임업인으로 나주에서 조경수 재배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실이 맞지 않아 조직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등 국가 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임업후계자 첫 활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영산강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꼽았다.

이번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는 탄소중립 실천과 도시 녹화 사업 확산, 생활 속 산림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유실수와 관상용 묘목 등 4종류에 3000여그루를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서 회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경험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전문임업인 나주시 협의회는 산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서창농협은 12일 서창농협 DSC(벼 건조·저장시설) 인근에서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사랑 환경’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 서창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 재활용 자재 환경공단 이송·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서창농협은 12일 서창농협 DSC(벼 건조·저장시설) 인근에서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사랑 환경’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관내 영농회를 순회하며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해 처리하는 것으로, 농민 조업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과 자재는 별도로 분류해 한국환경공

단 광주분부로 이송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했다.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연말 ‘사랑의 쌀·김치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명렬 서창농협 조합장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일은 농업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불법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대, 중국 동양중학교와 국제교류 협력 확대 김동진 총장 등 방문단, 대학 소개 등 유학설명회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11일 중국 숭양현에 소재한 동양중학교를 방문해 양 기관 간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 광주대는 김동진 총장, 김지혁 학생지원처장, 최지수 국제협력부처장이 참석했으며, 동양중학교에서는 범위 이사장과 이진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광주대 방문단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400여명의 동양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소개와 한국 유학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교육 환경과 전공 프로그램, 유학생 지원 제도, 한국 대학생활 등을 소개하며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접 학생들에게 광주대의 교육 비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방향을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학업과 진로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 국제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광주대학교와 동양중학교는 2025년 2월 교육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협력관계



광주대학교는 11일 중국 숭양현에 소재한 동양중학교를 방문해 양 기관 간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를 지속하고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동양중학교 출신 학생 5명이 광주대에 입학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어 12월에는 동양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20여명을 광주대로 초청해 1주일간 한국어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해 ‘청백리 골든벨’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 여수시, 퀴즈로 배우는 ‘청백리 골든벨’ 개최 참여형 교육...반부패 법령 이해 강화·청렴 실천 의지 다져

여수시는 최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해 ‘청백리(청렴한 100인 리더)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직원 100명이 문제풀이자로 참여해 청렴 관련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뤘다. 진행은 1~3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2라운드는 객관식 문제, 3라운드는 주관식 문제로 구성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으로 출제됐다.

여수시는 퀴즈 형식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청렴 지식을 습득하는 체험형 청렴교육으로 운영했다.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은 “이번 청백리 골든벨이 직원들의 청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동강대 간호학과 RCY 동아리는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 “헌혈은 사랑”...동강대 11년째 나눔 문화 실천 간호학과 RCY동아리, 2016년부터 캠페인 활동 지속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난 2016년부터 11년째 ‘헌혈 캠페인’을 펼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동강대 간호학과 RCY(Red Cross Youth: 청소년적십자) 동아리는 최근 일교내 교수연구동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 동아리는 직접 헌혈에 참여하고 교내 곳곳에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2026학년도 신학기 첫 캠페인에 1학년 신입생들이 적극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동강대는 2016년부터 매년 4차례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다.

이민숙 총장은 “오는 4월23일 동강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재능기부, 인프라 공유 등 다채로운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웃 사랑 실천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영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강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을 위촉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영광교육지원청

## 영광교육지원청,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 지원 강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위촉

영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강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을 위촉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 문제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운영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위촉된 학습코칭단은 심리·정서 상담사, 언어치료 전문가, 기초문제교육 교사 등으로 구성, 단위학교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답안교사와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학습 상담과 학습코칭을 진행한다. 또 초·중·고 단계별 맞춤 지원, 언어치료, 학습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학습코칭단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자신감 회복을 돕는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단순한 학습 보충을 넘어 학생의 학습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습·정서·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통합 지원 체계”라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지원이 어려운 학생까지 세심하게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